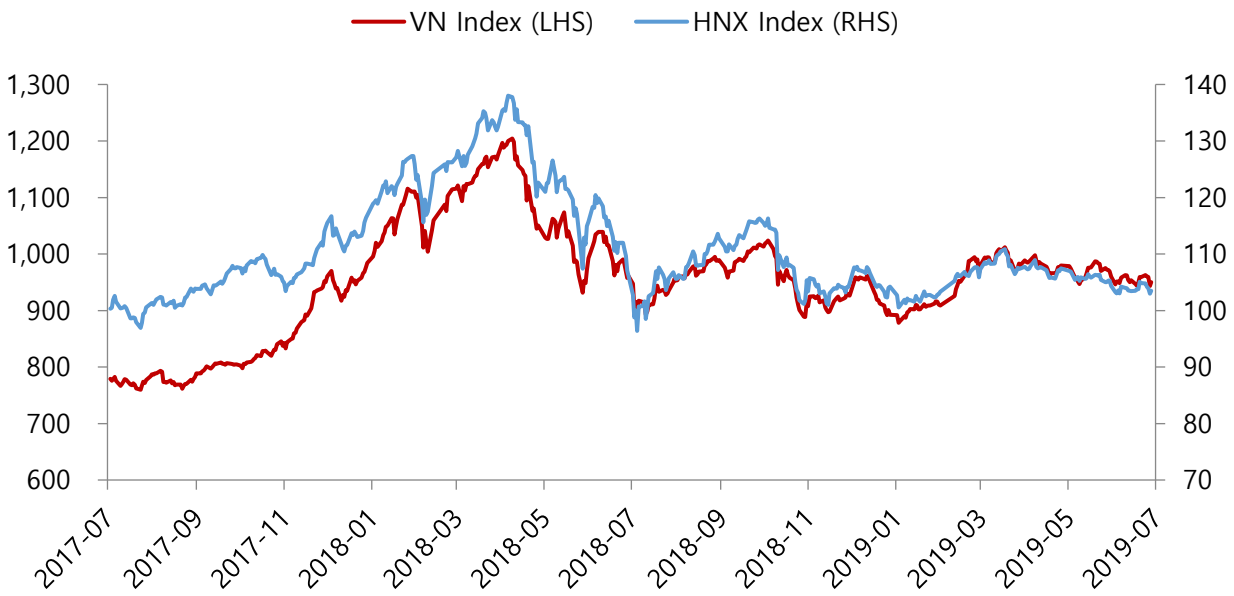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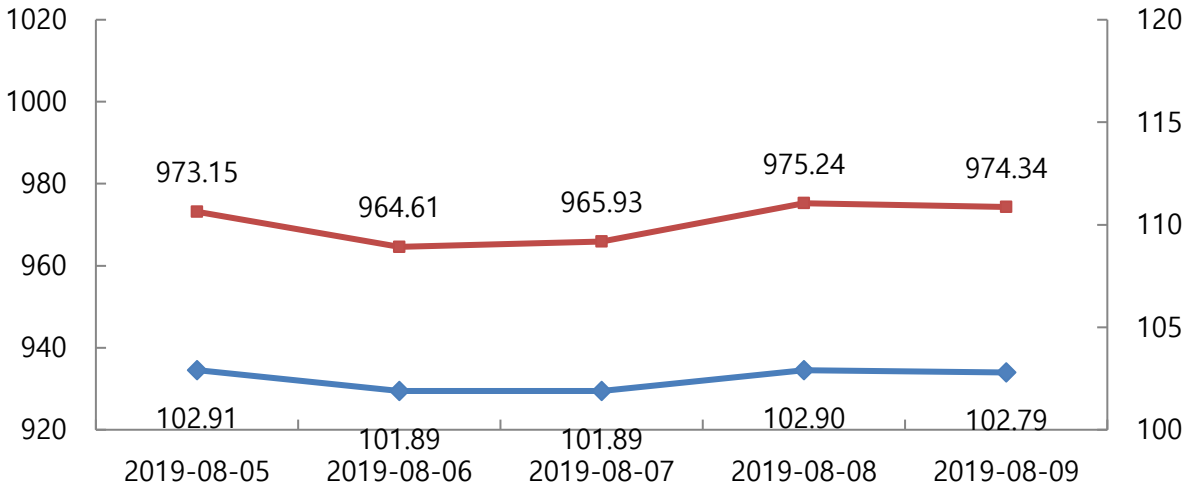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미·중 환율 전쟁에 베트남 주식시장이 흔들렸다. VN 지수는 05 일 전 영업일 대비 17.95 포인트(1.81%) 하락한 973.15 포인트를 기록하는데 이어 06 일 970 선이 붕괴되는 등 거세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반발 매수와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로 08 일 다시 970 선을 회복하였고, 09 일에는 전일 대비 0.9 포인트(0.09%) 하락한 974.34 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 역시 08 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장을 기록하면서 호치민 시장과 비슷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 개별 기업 뉴스

○ 빈 그룹, 7억 5000만 달러 상당 채권 발행 계획

베트남의 최대 민간 대기업인 빈 그룹이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국제채 발행을 위해 주주들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 수익금은 신규 투자 자금과 운전 자본 보충에 사용될 것이라고 빈 그룹은 밝혔다. 이 채권은 200,000달러의 액면가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표면이자율은 각 발행 시점에 결정되고 3-5-7년 만기로 발행된다.

빈 그룹의 올 상반기 매출은 61조5000억 동(26억60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세후 이익은 3조 3000억 동(1억4247만 달러)으로 89.5% 증가했다.

○ 페트로리멕스, 세후 이익 11% 증가

베트남 국영 석유그룹 페트로리멕스의 올해 상반기 세후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조 4000억 동(1억 260만 달러)으로 올해 전체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그룹의 매출은 91조 7000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6월부로 페트로리멕스의 총 자산은 연초 대비 3% 증가한 58 조 동에 달하고,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조 6000억동으로 3% 감소했으며 총 자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 채권은 8조 3000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재고자산은 10조 8000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상반기 미국 제품 수입 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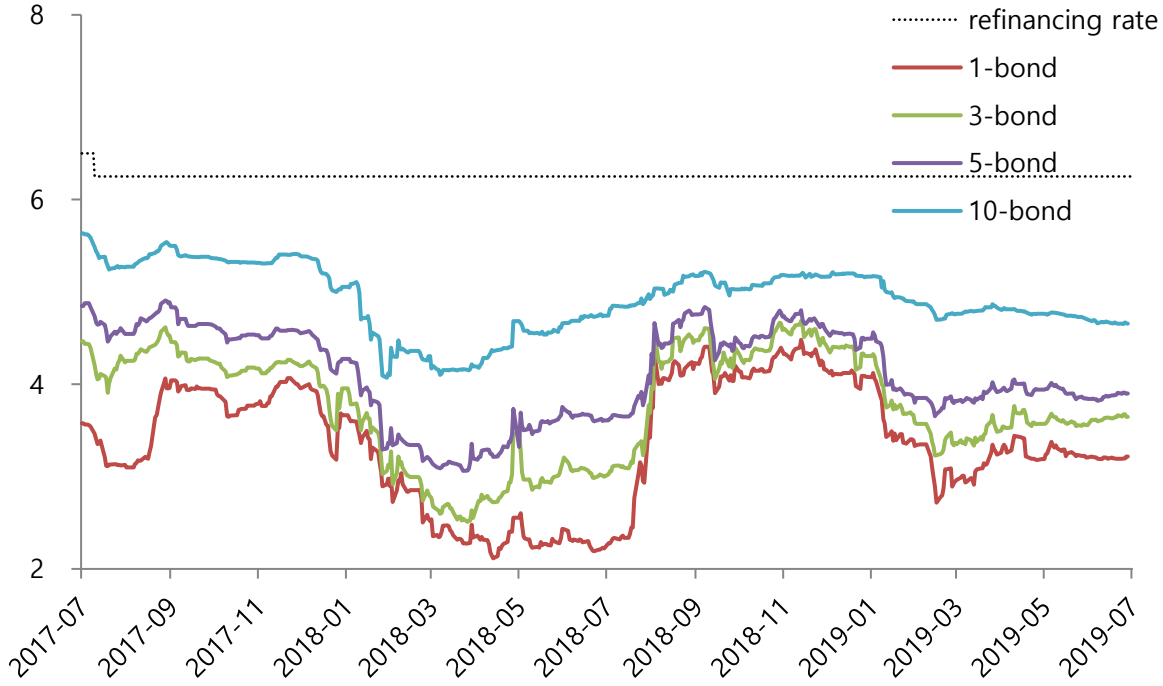
베트남의 올 상반기 미국 제품 수입은 69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베트남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14개의 수입 품목에서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자동차 부문은 2400만 달러로 107%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수입 또한 880만 달러로 95% 증가하였다. 야채와 과일 수입은 1억 1600만 달러를 넘어서며 70% 증가했고, 해산물은 4700만 달러로 67% 증가했다. 제과 및 시리얼 제품 수입은 500만 달러를 넘어서며 66% 증가했다. 컴퓨터 및 전자제품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여 총 수입의 32%를 차지했다.

■ 베트남 소매 판매, 7 개월 동안 1203 억 달러 달성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베트남의 상품 및 서비스 총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2800조 동(1203억 6000만 달러)을 달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증가율은 2018년의 기록보다는 낮지만 지난 3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연간 10%~10.8%였다. 가격요인을 제외할 경우, 첫 7개월 동안의 구매력은 8.74%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8.72%) 보다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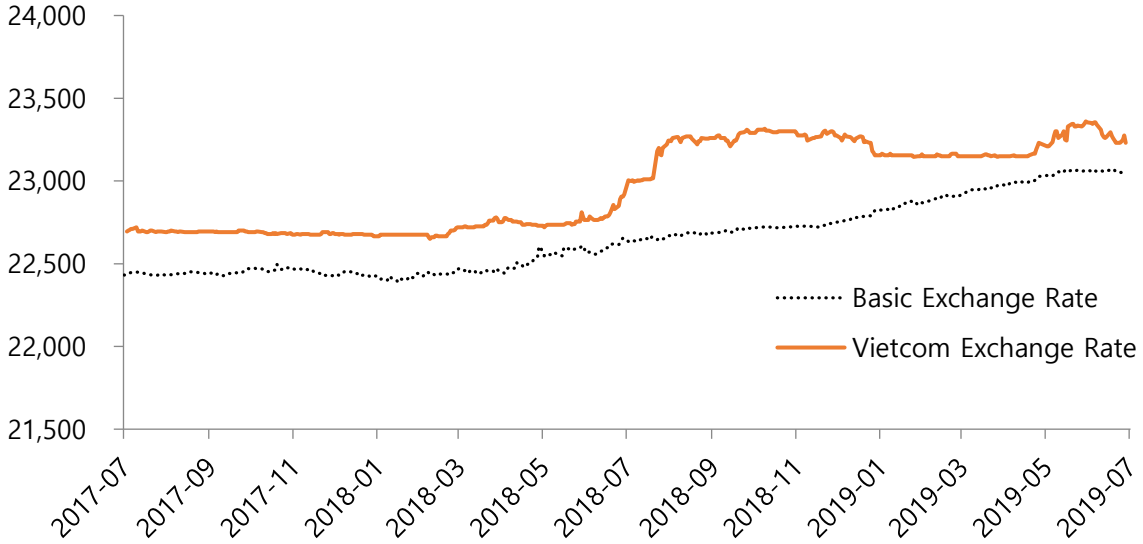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08-09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40	23,140	23,260



■ 베트남 금 시세, 미·중 무역전쟁으로 6 년만에 최고치 경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의 금 시세는 이번 주 4.97% 올라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최대 보석회사인 DOJI는 08일 오전 판매가를 전일 대비 0.71% 상승한 테일(1.2 온스) 당 4,230만 동(1,826 달러)으로, 구매가를 4,150만 동(1,792 달러)으로 설정했다. Phu Nhuan 쥬얼리는 가격을 0.85% 인상하여 구매가를 4,150만 동(1,792 달러)으로, 판매가를 4200만 동(1,812 달러)으로 설정했다. 월요일 이후로 200만 동(86.4달러)이 인상되면서 금 시세는 201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200만 동(1,812 달러)을 돌파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빈 즈엉, 아파트 공급 붐

산업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이웃 지역 호치민이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 즈엉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다. 베트남 부동산 컨설턴트 JLL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남부 지방의 공급량은 24,000 대를 넘어서며 호치민 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을 현재 법적 장애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호치민에 비해 빈 즈엉의 법적 절차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치민이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즈엉의 아파트 공급은 올해와 내년에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호치민에 기반을 둔 개발업자들이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5. 한국 기업 동향

■ 링거워터, 마시는 링거액 '링티' 베트남 수출

퓨쳐스트림네트웍스(FSN) 자회사 링거워터의 기능성 음료 '링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 링거워터는 '마시는 링거액'으로 알려진 링티가 베트남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4억원 규모의 초도물량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 신물질 연구개발 및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베트남 기업 '크레아셀'을 통해 현지 병원 위주로 유통될 예정이다. 링거워터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필리핀, 중국 등 진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808010001442000090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